

평양, 경제사절단 방문록



영림목재(주)
대표이사 이경호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IPA) 경제대표단 50명은 지난 11월 2~5일 평양을 방문, 남·북 지방자치단체간 경제교류협력을 위한 활동을 벌였다.

▲남포항 현대화 사업 적극 추진 ▲인천항과 남포항간 항만 및 해운분야 교류 사업 추진 ▲교류협력 사업 실현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실무협의 개최 등을 합의하였으며, 이번 의향서 체결은 남북 항만 간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벌이기로 한 첫 사례란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당 협회 임원 이신 이경호(영림목재(주) 대표이사)부회장이 참석하여 방문록을 기고하였다

- 편집자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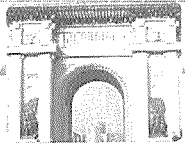


인천시 경제대표단 50명의 일원으로써 11월 2일부터 5일까지 평양을 다녀오기 위해 인천출국공항 A카운터에 집합하였다. 이번 파견은 김동기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市 대표단, 고남석 감사 등 인천항만공사 팀을 비롯하여 경제대표단의 수장으로써 상공회의소 김정치회장이 여러 업체들을 선발, 구성된 것이라 한다.

그런데 해외여행을 100회 이상

다녀온 경험이 있는 필자로서도 처음부터 A카운터 집합이라는데 가벼운 흥분마저 느꼈으나 그저 인천공항 맨 오른쪽에 위치한 것뿐이었고 아시아나 직원들이 탑승을 별도로 도와주고 있음이 조금 다를 뿐이었다.

인천시 담당팀장으로부터 주의사항들 - 예컨대 세관통관상의 주의점, 절대 남한.북한으로 부르지 말고 남측, 북측으로 또는 귀측(貴側)으로 호칭해야 한다던가 사진을



|| 특·한·방·문·기·행·문 ||

사전허락 없이 찍지말것 그리고 아가씨라던가 언니 호칭대신 접대원동무 또는 안내원선생이라고 얘기해야 한다는 등등을 여러번 다짐받고는 모든 핸드폰을 보관시킨 채 독자적인 출국대를 통하여 탑승하게 되었다.

고려항공에서 전세기로 온 비행기에는 북측의 조종사와 승무원이 타고 있었으며 탑승권에는 탑승구, 탑승 및 출발시각이 표시되어있지 않았고 마침내 인천공항을 이륙하자 곧이어 1시간 이후면 평양에 도착한다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그렇다! 이렇게 짧게 오갈 수 있는 곳이 그렇게 오랫동안이나 장막에 가려있었다니. 아니 만약 직선으로 비행한다면 더욱 짧은 시간으로 가능할 것이며 최근 인천시에서 제시한 인천 - 개성간의 도로개설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편리하고 경쟁력 있는 도로망이 될 것인가. 또한 바닷길로써 인천항과 남포항과의 海路 연계는 어떠한가. 그러기에 남북한간의 陸·海·空 모든 길이 인천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빨리 열려야 한다는 말에 설득력이 있게 되는 것이다.

흐릿한 날씨에 평양의 순안비행장에 도착하자 민화협(민족화해협력위원회)관계자들이 마중 나오고 북측에서 준비된 벤츠승용차 2대와 중형버스3대로 나뉘어 타게 되자 다소 긴장도 풀렸겠지만 어젯밤에 짓궂은 주당들에게 새벽까지 붙잡혀 있어서였던지 갑자기 한기를 느끼게 되었다. 그날 몇몇 주당들의 얘기로선 아마도 북측에서 원하는 술에 취하여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나 어쨌다나 하면서 자꾸 술잔을 권했던 것 같다.

버스를 타고 숙소인 양각도 호텔로 향하는 동안 창밖에 비치는 풍경과 간간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느라 모두 말이 없었다. 특히 채소농장이 많이 보였는데 안내자말로는 이곳에선 남새농장이라 부르는데 곧 수확하여 김장을 담글 것이라 한다. 남측과 뭐가 다른가? 같은 민족이니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웬지 처연한 심정은 숨길 수가 없었다. 이외의 모습이나 평양시내의 광경은 이미 모두가 듣고 영상에서 본 바와 같기에 더 이상은 이에 생략하고자 한다. 다만 이곳도 남측과 마찬가지로 晩秋의 산과 들관을 보며 하루빨리 남북통일이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상념에 그저 무거운 마음뿐이었다.

대동강 가운데 다리로 연결되어 지어진 양각도 호텔에 짐만 간단히 풀고 이후부터 돌아올 때까지 만경대, 생가, 단군릉, 주체사상탑, 모란봉, 천리마동상, 개선문, 묘향산, 보현사, 국제친선관람관, 동명왕능 등을 방문하고 금성학원, 인민대학습당 및 만경대





학생공전에서의 공연관람을 하였으며 만수대 창작사 및 금강산 판매소에서 간단한 쇼핑을 할 수 있었다. 이에 관한 대부분의 모습이나 현장에 관해서도 잘 알려져 있는 부분이라 더 설명할 필요는 없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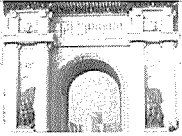
그런데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 경제사절단이 가장 보고 싶어하던 남포항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항만공사 등 일부 팀은 참석했다 함) 남북합작회사의 공장방문 등도 오리무중이었고 시간을 쪼개어 지하철이라던가 평양역을 가보고 싶다고 하였으나 당의 지시로 불가능하다는 답변 밖에 들을 수 없어 경제인들의 불만들이 매우 많았음은 정말 유감이었다.

더욱이 큰 기대속에 남북경제인의 회담이 이루어졌지만 그 결과에 너무 어리둥절할 수 밖에 없었다. 북측 책임자의 발언이 무언가 남측투자자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심겁게 회의를 끝내버린 것이다. 예를 들어 남측의 곧 망할 회사가 그동안 개성에 투자했다는 등 우리로선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을 하며 이익에만 급급하거나 싼 인건비 만을 위해 투자하는 회사 말고 손해가 나더라도 장래를 위해 오는 회사를 우대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김정치회장 등 우리측에서는 북측의 오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나름대로 설명하고 더 나아가 상호간 인프라시설 등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이해시키려 했으나 그들은 일방적으로 회의를 마치겠다고 일어서 버린 것이었다.

분을 삭이지 못한 우리는 그날 저녁에 市の 조운길 자치국장에게 “곧 망할 회사들이 투자하려 한다는 북측의 말이, 여기에 온 우리들을 뜻함인가”하고 항의 하였더니 그게 아니고 첫번째로 개성공단에서 생산품을 생산하며 떠들썩했던 ‘리빙아트’라는 회사가 최근 문제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 그런 일이 있긴 있었구나. 아니 개성공단 입주에 있어서, 그렇게 엄격하고 공정하게 선정했다는 업체가 생산 몇달만에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북측에 처음부터 그런 첫인상을 주게 되다니 정말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북측에선 자본주의에 대해 경험과 인식이 아직 부족할텐데도 말이다.

그러고보니 북측의 주장대로 다음 기회에는 우리측의 준비도 좀더 해야겠다고 느꼈다. 각 회사들에 대한 업종별로 카다로그 등을 집약하여 투자의 형태라던가 규모의 크기, 향후의 계획 등 등을 사전에 요약하여 북측에서도 미리 검토하게 한 후 분야별로 나뉘어 회의를 갖는 것이 효율적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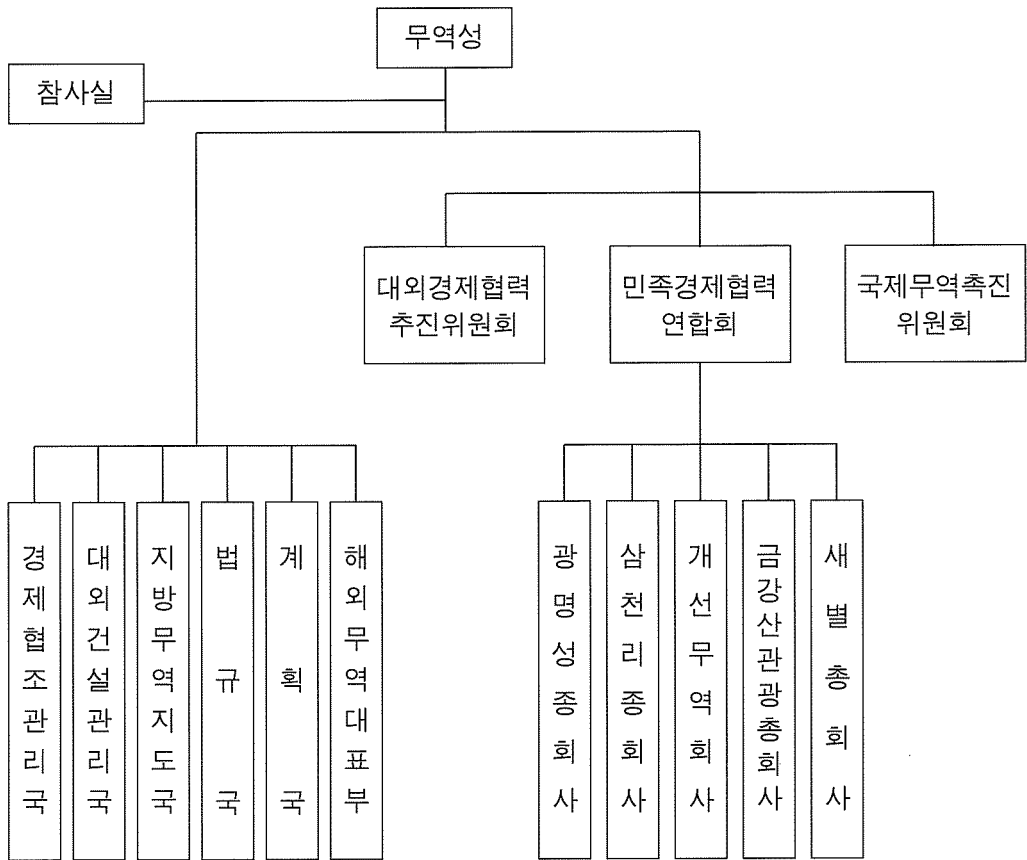
이날 북측에서 소개한대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외국의 자본과 기술유치 및 개방특구로 지정된 나진 선봉지대의 개발을 주로 관장하고 있다. 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산하에 많은 무역회사를 둔 무역업무 전담기구로서, 당초에는 일본과의 무역관계를 주로 맡아왔는데 최근에는 전반적인 서방국가와의 무역뿐 아니라 외자유치 부문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종전의 대외건설총국과 남남합작회사를 ‘대외건설관리국’으로 합병하고, 경제합작국과 합영지도국은 ‘경제협조관리국’으로 통폐합하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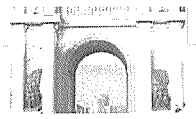
북·한·방·문·기·행·문

특히 대남교역은 '민족경제협력연합회'가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 바, 산하에는 피복, 경공업, 농수산물 전문으로 다루는 '광명성총회사', 대우남포공단사업을 비롯하여 전자, 중공업, 화학분야에서의 무역 및 투자사업을 전문으로 맡고 있는 '삼천리총회사', 계약재배 등 주로 농업분야에서의 합작사업을 벌이고 있는 '개선무역회사', 그리고 현대의 금강산관광개발사업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금강산관광총회사' 등을 두고 있는 것이다. 도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대외경제 관련조직



금번의 북한여행중 차 속에서, 또 호텔방에서 보이는 대동강너머 회색벽들로 이루어진 건물들에서, 전력난에 적막한 밤거리에서, 옥류관, 단고기(보신탕)등 유명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반미사상이 투철한 관계로 모든 상품에 유로화로 표시하면서도 실제 대부분 달러로 거래함에 있어서, 뭐라도 기념품으로 사야 하겠다는 심정으로 김기만 화백의 그림 한 점을 유로 150이 미화 100달러로 흥정되면서, 그렇듯 획



일적인 텔레비전 방송에서, 인간보다는 마치 기계와 인형이 합성된 듯한 여러 공연에 박수를 열렬히 치면서, 인사치레 같지만은 않은 인천시에 대한 북한당국의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또한 돌아오는 비행기 속에서 보이는 순간비행장에는 하루종일 뜨고 내리는 비행기라곤 우리 한 便 밖에 없는 듯이 보이고 또 우리가 이륙할 때까지도 손을 흔들고 있는 안내원선생들을 보면서 웬지 눈가가 붉어질 수 밖에 없었으며 그리고 붉은 바탕에 영어로 AIR KORYO라고 인쇄된 탑승권에 목적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음을 보면서 깊은 상념에 잠기게 되는 것은, 50여년 동안 이제까지는 남한과 북한이 한 민족이라는 점에 관해서만 모두가 인정해온 것 뿐이라면 이제부터 앞으로는 그간 서로 다른 이념이나 정치성에 관계없이, 현 여건속에서 동족간의 일체감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어나가 통일을 이루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숙제라고 사료되는 것이다.

이에 우리 경제인들은 중국, 베트남 등에 공장의 해외이전보다도 오히려 언어의 장벽이 없고 지리적으로도 가까우며 물류비의 절감 그리고 인건비의 저렴뿐만 아니라 우수한 북한근로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북한지역에의 투자부문에 대하여 대부분 강한 의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하루빨리 남북한 경제교류를 희망하는 많은 기업들의 소망을 담아 기존의 공단설립의 조속한 완성뿐만 아니라, 인천시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제반 남북교류사업에 보다 관심을 갖고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적으로 지원하며 성원해주기를 바라는 중소기업인중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는 소박한 심정일 뿐임을 이에 밝히고자 한다. 더욱이 지난 9월 인천시 주관으로 아시아육상대회를 행사하여 북한도 참석한 가운데 훌륭히 치루어 내지 않았던가.